

## 한국 항공우주분야의 현재와 미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채연석

항공우주는 21세기에 들어서서 기술,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안위와 존엄성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기술 및 지식 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산업일 뿐만 아니라 기술파급효과로 전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우주 개발과정을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항공분야의 경우, 1975년 500MD 헬기 면허생산으로 시작하여 F5E/F 전투기, F-16 전투기, UH-60헬기 등 다양한 기종에 대한 기술도입 면허생산단계를 거쳐, 현재는 기본훈련기인 KT-1의 국내독자개발 및 고등훈련기인 T-50을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 중에서 현재 KT-1, T-50, 다목적 성층권 비행선, 4인승 소형항공기 사업 등은 매우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우주분야의 경우, 10여년 정도밖에 안되는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1989년부터 착수한 과학로켓 1호 개발을 시작으로 1993년 1단형 고체로켓인 KSR-I, 1998년 2단형 로켓인 KSR-II를 성공적으로 비행시험한데 이어 2002년에는 국내 초유의 액체로켓인 KSR-III를 개발, 성공적으로 비행시험함으로써 우리나라 우주개발기술을 급상승시키기에 이르렀으며 현재 본격적인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해 소형위성발사체 사업인 KSLV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활성화 될 우주인 양성사업을 필두로하여 다목적 실용위성 사업, 우주센터 건설, 국제우주정거장 사업에의 참여 등 다양한 우주분야 개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면, 우리나라 항공우주개발은 과거 기술도입단계에서 점차 본격적인 연구개발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이러한 개발기술의 고도화가 진행될수록 범세계적인 기술개발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수밖에 없으며, 우리나라가 향후 15년 후에 항공우주 선진국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육성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